



[제2021-47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21.9.22(수)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한국어교육
연락처	323-936-3025/seung822@kccla.org	담당자	노승환

LA한국문화원, 한국어 수강생 대상 한가위 행사 개최

	
한국어입문반 수업모습	중급1반 수업모습
	
웃놀이 사진(1)	웃놀이 사진(2)

주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과 미국 거점 세종학당(소장 정은미)은 한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LA세종학당 수강생 대상으로 추석의 의미와 문화, 음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지난 9.21(화) 저녁 7시에 LA한국문화원과 코리아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때문에 반별로 진행된 이번 대면 행사에서 각 반 수강생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 추석의 역사적 배경, 풍습과 문화를 배우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국어 입문반 학생 11명은 선생님과 함께 제기차기와 윷놀이를 직접 배우고, 두 팀으로 나눠 직접 학생들이 말을 놓고, 상대방의 말을 잡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윷놀이를 즐겼다.

행사에 참여한 한국어 입문반의 유세프씨는 “대면 학습은 같은 교실에서 목소리를 듣고 상호 작용을 위해 직접 얼굴을 볼 수 있어 한국어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오늘 급우들과 함께 배운 윷놀이 게임은 내가 해본 다른 게임과 비슷했고 아주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반의 사샤씨는 “윷놀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 게임이 매우 경쟁적이어서 아주 즐거웠다”고 밝혔다.

우승팀은 세종학당재단의 로고가 있는 면 마스크를 선물로 받았으며, 행사가 끝난 후 모든 학생들이 귀가 할 때 송편이 추석 선물로 제공됐다.

박위진 LA한국문화원장은 “델타변이로 인해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미 현지인들의 열기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문화 체험할 수 있는 대면 행사 기회를 꾸준히 마련하여 타인종 수강생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16(목)부터 매주 목요일에 운영되고 있는 LA한국문화원의 온라인 한국어 교육에는 총 9개반에 274명이 등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거점 세종학당에서 지난 9.14(화)부터 주 1회 (매주 화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대면교육은 코로나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현재 5개 반만 운영중이며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면 대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끝/